



오래된 옷감에 생명을 기우다  
야와타가키 무츠코

이즈모 시의 인적 드문 시골 마을, 여기에 켈트 작가 야와타가키 무츠코 씨의 이즈모 켈트 미술관이 있다. 200년 된 고민가를 개조해서 만든 이곳은 사계절 켈트 상설전이 열리는 일본 유일의 켈트 미술관이다. 원래 여성복 디자이너였던 야와타가키 무츠코 씨는 2005년 세계 켈트 전문작가전에서 최우수 작가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켈트 작가다. 그녀는 누군가의 옷장에, 창고에 깊숙이 묻혀 있던 오래된 기모노 천을 이용해 작품을 만든다. 그중에는 다이쇼 시대 천왕의 옷을 기증받아 만든 작품도 있다. 대부분 에도 시대부터 쇼와 초기의 것들이라 하니 길게는 400년, 짧게는 60~70년 족히 된 것들이다. 그녀의 작품에서 화려하지만 절대 과잉되지 않은 절제미가 느껴지는 까닭은 오랜 소재가 주는 중후함 때문일 것이다.

자연에서 디자인 모티프를 얻는 그녀의 작품은 자연의 색을 닮아 있다. 빛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거듭하는 컬러를 세밀하게 표현한다. 그녀에게 '레드'는 단 하나의 색이 아니라, 수십 개의 픽셀이다.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최소 두세 달이 걸린다. 대작은 몇 년에 걸쳐 비로소 완성되기도 한다.

그녀는 작품뿐 아니라 조명의 밝기, 함께 놓이는 조형물의 배치, 꽃꽂이 방식까지 작품이 놓이는 공간 전체를 아트 디렉팅한다. 미술관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것이 놓인 공간이 하나의 작품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술관의 한쪽에는 작가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다도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누군가의 집에 놀러와 작품을 감상하고, 따뜻한 차 한잔 대접받는 편안한 기분이 든다. 그 안주인이 잠시나마 한국을 방문한다. 12월 1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릴 켈트 페스티벌에 초대 작가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글로만 설명한 야와타가키 무츠코 씨의 작품을 두 눈으로 직접 느껴 보시길.

관람료 일반 5백 원  
개관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수요일과 매달 셋째 주 일요일은 휴관)  
가는 법 이즈모 공항에서 자동차로 10분 소요  
문의 [www.yawatagaki.com](http://www.yawatagaki.com)



1 메이지 시대의 기모노 오비를 이용한 켈트 작품. 2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미술관. 200년 된 민가를 개조해 만들었다. 3 켈트 작품뿐 아니라 전시 공간의 아트 디렉팅을 총책임 맡고 있는 야와타가키 무츠코 작가. 4 자연을 모티프로 한 작품 시리즈.

## 八幡垣睦子—長く伝えられた布地に 生命を織う—

出雲市の、人もまばらな田舎、ここへキルト作家、八幡垣睦子さんの出雲キルト美術館がある。200年経った古民家を改造して造ったここは、四季を通じてキルトの常設展が開かれている日本で唯一のキルト美術館だ。

もともと女性服のデザイナーだった八幡垣睦子さんは2005年、世界キルト専門家展で最優秀賞である作家賞を受賞した世界的なキルト作家だ。彼女は誰かのタンスに、蔵の奥に埋もれていた着物を利用して作品をつくる。その中には大正時代の天皇のお召し物の寄贈を受けてつくった作品もある。大部分は江戸時代から昭和初期の布地であることを考えると、長くて400年、短くとも60〜70年はゆうに経ったものたちだ。

彼女の作品は華麗であるが、決して過剰ではない。節制美が感じられる訳は、古い布地が与えてくれる重厚感のためだ。自然からデザインのモチーフを得る彼女の作品は、自然の色合いに似ている。光によって、微妙な違いを醸し出す色々を、精密に表現している。彼女にとって「レッド」とは、単にひとつの色ではない。数十個のピクセルだ。

作品一つを完成させるには、少なくとも2〜3ヵ月は掛かる。大作は何年も掛かって初めて日の目を見る場合もある。彼女は作品だけではなく、証明の明るさ、一緒に置く造形物の配置、生花まで、作品の置かれる空間全体をアートディレクティングする。美術館に脚を入れたとき、そこにある空間がひとつの作品として心に近づいてくるのはそのためだ。美術館の傍らには、作家とお話をしながら抹茶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空間も整えている。誰かの家に遊びに来たようで、作品を鑑賞して、温かい茶を一杯いただき、静かで安らかな気分になるのだ。

その女性の主が、しばしの間、韓国を訪問する。12月1日から3日間、コエックスで開かれるキルトフェスティバルに招待作家として参加するためだ。ここで文章でだけ紹介した八幡垣睦子さんの作品を、二つの眼で直接感じてみよう。

翻訳：堀江研次